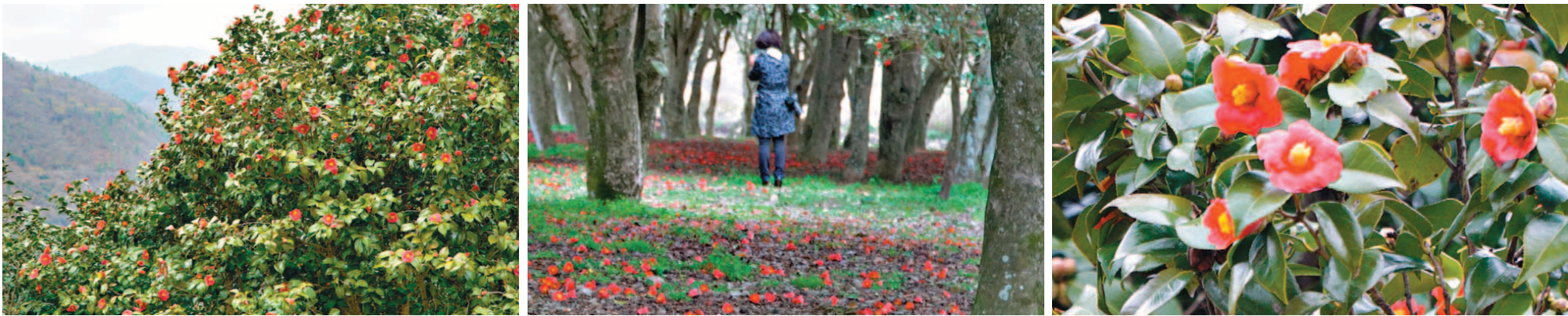


따스해진 햇살, 피부를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이제는 봄이네”라고 느끼게 하는 계절의 신호는 많다. 하지만 역시 봄소식을 알리는 제대로 된 전령은 향긋한 내음과 함께 화사한 자태를 뽐내는 각종 봄꽃이다. 그중에서도 붉은 자태를 자랑하는 동백과 고고한 품위와 은은한 향기의 매화는 초 봄의 설레임을 잘 표현하는 꽃들이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장흥 천관산 동백림과 수도권 첫 매화 정원 용인 ‘하늘매화길’을 찾아갔다.



붉은 꽃망울을 하나씩 터트리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군락지 장흥 천관산 동백생태숲. 장흥 목촌마을 초입에 있는 동백림에서는 바닥에 붉은 점을 수놓은 동백꽃잎이 눈에 확들어온다. 3월 중순부터 4월 초에 만개하는 장흥 지역 동백은 봄에 꽃을 피운다고 ‘춘백’이라고도 부른다. 장흥 | 김재범 기자

동백꽃 수놓은 길따라 성큼...이곳이 낙원일세

천관산 동백림 2만여그루 군락 봄에 피는 ‘춘백’...3, 4월 절정 장흥 삼합 등 지역 음식도 꿀맛

우리나라에는 동백 군락지가 남쪽을 중심으로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흥 천관산(723m) 동백 숲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만㎡에 달하는 지역에 걸쳐 50~200년 생 천연 동백 2만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동백꽃하면 대개 늦겨울 하얀 눈을 맞으며 빨갭게 꽃망울을 터트린 모습을 떠올린다. 동백(冬栢)이란 이름도 그런 모습에서 유래됐다. 하지만 동백 중에는 봄에 피는

품종도 많다. 송창식의 노래 ‘선운사’에 등장하는 동백이나 이곳 천관산 동백림은 3월 중순부터 4월 초에 절정을 이룬다. 그래서 춘백(春栢)으로 불리기도 한다.

천관산 동백숲에서 나무에 달린 꽃만 마냥 바라보면 숲이 지닌 매력의 절반만 느끼는 것이다. 눈길을 발 아래로 돌리면 등산로에 가득 놓여있는 붉은 꽃송이들을 볼 수 있다. “바람불어 설운 날에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이라는 송창식의 노랫말처럼 먼저 만개한 뒤 하나, 둘 뚝뚝 떨어진 꽃들이 길을 점점이 수놓은 모습은 나무에 매달린 모습보다 더 처연하고 아름답다.

천관산에서 차로 20분 정도 달리면 만나는 장흥군 용산면 목촌마을에서는 또다른 느낌의 동백숲을 볼 수 있다. 마을 초입에



소고기, 키조개, 버섯으로 이뤄진 장흥 삼합

2000㎡ 넓이로 140여 그루의 동백림이 있는데, 그리 넓지 않은 부지에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떨어진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밖에 득량만의 시원한 풍경이 멋진 정남진 전망대와 낚시공원, 고즈넉한 분위기와 무성한 갈대숲이 장관인 신흥갈대습지, 피톤치트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등도 함께 돌아보면 좋다.

●장흥 삼합부터 갑오징어 먹물찜까지

장흥은 먹거리의 고장이다. 이곳의 대표 음식은 장흥 삼합. 장흥 소고기와 키조개 관자, 참나무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을 함께 먹는 이곳의 명품 음식이다.

여기서 팁 하나. 상추 대신 은은한 단맛이 인상적인 장흥산 양파를 잘라 그 위에 삼합을 얹어 먹어 보자. 삼합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지역 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이다.

삼합 외에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라식당’의 소머리국밥과 선지국밥, 쫄깃한 식감과 미나리가 아삭함이 매력인 주꾸미 사부사부, 먹물의 향이 인상적인 갑오징어 먹물찜도 꼭 맛보기를 권하는 지역 명품 음식들이다. 장흥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용인 에버랜드에 매화꽃 내음 퍼지네

에버랜드 ‘하늘매화길’ 29일 오픈 3만3000㎡ 규모 11종 700여그루

고고한 자태와 향으로 예로부터 선비들이 좋아하던 꽃 매화. 그동안 매화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전남 광양이나 경남 양산 같은 남쪽 지방까지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 강남에서 차로 40분만 달리면 매화로 멋드러지게 꾸며진 정원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용인 에버랜드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아트랙션 ‘폴럼버스 대탐험’ 뒤편 약 3만

3000㎡ 부지에 수도권 최초의 매화 테마 정원 ‘하늘매화길’을 조성, 29일부터 오픈한다.

폴럼버스 대탐험 옆의 마중물을 거쳐 하늘매화길 입구에 접어들면 아트랙션의 스타일로 인한 관람객의 비명과 환호로 떠들썩한 테마파크와는 전혀 다른 고즈넉한 숲길의 방문객을 맞는다. 대숲으로 둘러싸인 오솔길을 지나 완만한 언덕길을 접어들면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는 각종 매화나무들이 눈에 들어 온다. 하늘매화길에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특별 공수한 만첩



용인 에버랜드 하늘매화길에서 꽃망울을 터트린 매화. 이곳 매화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바라볼 때 더욱 자태가 곱다. 용인 | 김재범 기자

매, 율곡매, 용유매 등 11종 700여 그루의 매화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

하늘매화길 최상부 해마루와 달마당에 있는 만첩홍매 2그루는 경북 구미에서 옮겨 온 수령 50년 이상 된 고목으로, 수령이 크고 아름다운 이곳의 대표 매화이다. 이

밖에 천연기념물 484호 율곡매의 재배 묘목, 용유매, 수양매 등 쉽게 보기 힘든 다양한 매화를 꽃향을 맡으며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정병석 삼성물산 리조트사업부(에버랜드) 상무는 “현재 개화가 20% 수준인데 29일 오픈 때는 풍성하게 꽃이 피어 톨립축제부터 매화-벚꽃-장미로 이어지는 에버랜드 꽃축제의 라인업을 완성할 것이다”고 소개했다.

에버랜드는 다양한 계절 꽃을 최적의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늘매화길을 봄, 가을 특정 시즌에만 공개할 예정이며, 올 봄은 5월 6일까지 오픈한다. 용인 | 김재범 기자

정선 하이원리조트 ‘만우절 패키지’

정선 하이원리조트(대표이사 문태곤)는 4월 1일인 만우절을 맞아 정상가에서 최대 85% 할인하는 ‘만우절 패키지’를 출시했다. 4월 10일까지 판매하고 1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선착순 20실만 예약을 받는다. 패키지는 하이원 콘도와 하이원 팰리스호텔 투숙 두 가지 종류이다. 하이원 콘도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실내 양궁장 이용권, 워터월드 50%할인권, 운암정 커피 및 차 20% 할인권을 포함했고, 투숙일 기준으로 일요일부터 목요일에는 할인율 85%를 적용한다. 하이원 팰리스호텔 패키지는 스탠다드 더블 또는 트윈 객실, 커피 및 빵 세트, 하이원 워터월드 50%할인권을 제공한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어스 아워’ 참여

국내 IHG(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계열 호텔들이 ‘지구촌 전동 끄기 캠페인 2019’(Earth Hour 2019, 이하 어스 아워)에 참여한다. 올해 어스 아워는 30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어스 아워 캠페인은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캠페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년에 한 시간 동안 주요 건물들이 소등과 절전에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평창, 홀리데이인 리조트 알펜시아 평창, 홀리데이인&스위트 알펜시아 평창,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수원, 홀리데이인 광주 등 8곳 IHG 계열 호텔이 참여한다. 김재범 기자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땀을 뜨는 것이 아니라 바르는 것이다.

김오곤 원장의 **바르미쑈**

이런 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200ml

※의약품이 아닙니다.

신제품 출시기념 무료체험행사

발라주면 후끈하고! 자극없이!냄새없이! 언제 어디서나! OK!

무료체험 일주일 특별행사

☎ 080-990-3755

+ 연로하신 부모님께!

+ 육아노동에 힘든 주부들!

+ 골프, 등산 스포츠활동시!